

'전주 위대한 도약, 현장에서 시작된다'

우범기 시장, 팔복동 신복마을·동물원 찾아 광역도시기반조성실·복지환경국 현장 업무보고 받아

우범기 전주시장은 신속한 사업 추진 위해 현장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우 시장은 11일 도시재생사업이 펼쳐지고 있는 팔복동 신복마을과 동물원을 차례로 방문해 광역도시기반조성실과 복지환경국에 대한 현장 업무 보고를 받았다.

먼저 팔복동 신복마을을 찾아 빈집 밀집구역 도시정비 사업과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 등에 대한 추진상황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신복마을은 공간 배후지로, '팔복동 빈집밀집구역 재생사업'과 기후변화 대응력을 높이고 생활공간의 녹색 전환을 위한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곳이다.

우 시장은 팔복동 도시재생현장지원 센터를 찾아 미래 광역도시 기반을 구축하는데 주축이 될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 전주동물원을 찾아 '드림랜드 현대화사업'의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놀이시설 등에 대한 꼼꼼한 안전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전주 드림랜드 현대화사업은 노후화된 놀이시설을 동물원 외곽지역으로 확장 이전하는 사업으로, 올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실시된다. 시는 결과를 토대로 민간투자 유치 등 시설 조성·운영 방안을 결정할 뒤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우 시장은 2023년 복지환경분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고, 복



우범기 전주시장은 11일 도시재생사업이 펼쳐지고 있는 팔복동 신복마을과 동물원을 차례로 방문해 광역도시기반조성실과 복지환경국에 대한 현장 업무보고를 받았다.

지안전망 강화와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우 시장은 앞으로도 현장 업무보고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동고산성과 삼천면, 덕진공원, 혁신도시 복합역신

센터 등 전주시 주요 현안 및 공약사업과 연계된 사업 현장에서 이어질 예정이다. 우범기 시장은 "올해는 청년 전주의 위상과 자부심을 되찾고, 위대한 도약

과 대변혁이 시작되는 원년이 될 것이다"며 "그 시작은 현장에서부터 이루어지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현장을 찾아 전주의 위대한 도약을 위한 초석을 놓겠다"고 강조했다. /최아영 기자

"상반기 병역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북병무청,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등 소개

전북지방병무청은 상반기 달라지는 2023년 병역제도를 소개했다. 권대일 전북지방병무청장은 2023년 상반기 달라지는 주요 사항에 대해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병역이행자 교통비 지급기준 개선' 등으로 나눠 설명했다.

달라지는 병무행정의 자세한 사항을 살펴보면, 월 10만 원 지원하던 사회복무요원의 건강보험료를 올해부터는 전액 지원하게 되며, 사회복무요원이 안정적으로 복무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병역이행자의 입영 등을 위한 교통비 지급 기준도 기존 시외버스 운임단가 기준에서 자동차 이용 기준으로 변경되는 등 여비가 현실비용 수준으로 인상이 된다.

여기에 병역관정검사 병리검사 항목이 기존 B형간염, 고지혈증 등 28개에서 알부민, HDL콜레스테롤 검사 등 2개 항목이 추가되어 검사의 정확성을 높이고 청년 건강증진에도 기여하게 된다.

또 지금까지 육군 조리병은 조리분야 전공자와 자격·면허 취득자만 지원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요리에 관심과 취미가 있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입영 후 군(軍)에서 전문교육을 받고 복무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유치원 교사는 희망할 경우 현역병 입영일자를 학기 이후로 조정할 수 있으며, 예비군이 대학(원) 휴학 중 계절학기를 수강할 경우 동원훈련소집을 연기할 수 있게 되어 병역의무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게 된다.

2023년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의 상세내용은 병무청 누리집 상단메뉴에서 '병무소식' → 달라지는 제도'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영태 기자

건강하고 안전한 행복도시 전주

시민 질병 예방·건강증진 위한 다양한 보건의료사업 추진

전주시는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리는 행복도시를 위해 보건·의료분야 등 6대 사업을 11일 추진기로 했다.

보건의료사업은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및 공공의료사업 활성화 추진, 건강생활실천 환경 조성,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체계 구축, 감염병 대응·관리 체계구축, 환자·가족·이웃이 함께하는 행복한 치매안심사회 실현, 적극적 정신건강 증진사업 추진 및 전문인력 확보이다.

전주시 보건소는 365 건강관리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맞춤형 건강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건강생활실천 교육과 금연교육, 구강검진 및 상담, 심뇌혈관질환 예방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시민들의 건강실천 환경을 조성한다.

또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 보호 체계도 강화해 저소득층 암환자와 희귀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독거노인과 장애인을 대상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대상포진 백신 무료접종도 시행된다.

보건소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과 저거기·조제분유 지원액을 확대하고, 난임 시술 건강보험 급여 적

용 횡수 종료를 대상으로 난임시술 비도 추가 지원한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로터바이러스 백신 무료접종도 시행된다.

특히 보건소는 올해부터는 장애인 재활보조사업도 확대 운영하고, 제1의 치매안심도시 조성을 위해 치매사업을 확대 추진기로 했다.

이에 치매환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전주시립요양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마음치유지원사업과 정신질환자 회복과 자립지원을 위한 회복사업 등 전반적인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강화한다.

여기에 '회복지원공간 찾마중'을 본격 운영해 정신질환자의 회복과 자립 지원하고, '마음안심버스'를 활용해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직장인과 중년층을 위해 직장을 찾아가 이동 상담실을 운영기로 했다.

김진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올 한해 시민의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해 확대한 다양한 보건의료사업을 적극 추진해 시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행복한 전주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아영 기자

'청년 취업 2000 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

전주시, 기업 채용지원금·청년 취업장려금 지급

전주시는 청년 일자리창출과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청년 취업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시는 오는 20일까지 '청년 취업 2000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청년취업 2000 지원사업'은 만 18~39세 청년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고용촉진사업이다.

신청대상은 전주시 소재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기업 중 청년이 채용기업에서 6개월 미만 근무 중이거나, 미취업자를 신규 채용할 계획이 있는 기업이다.

또 청년에게 매월 지급되는 급여의 총액이 최저 임금 이상이어야 한다.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최대 1년간

매월 70만 원의 채용지원금이 지급되며, 참여한 취업청년에게도 2년간 최대 300만 원의 취업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20일까지 전주시청 누리집의 공고문을 확인 후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전주시 청년정책과(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13 대우빌딩 8층)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최라기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청년 취업 2000 지원사업을 통해 미취업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정규직으로 취업을 돕고, 중소기업에서도 안정적 인력 수급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며 "앞으로 다양한 청년 일자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아영 기자

전주덕진소방서, 공동주택 화재 시 대피 방법 홍보

"전주덕진소방서에서는 덕진구 관내 공동주택 단지 아파트 화재 대피 방법 안내문 배부와 SNS 홍보 등을 병행한 아파트 내 대피시설 사용법을 알리고, 화재안전조사 등 공동주택 화재와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노력을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현철 전주덕진소방서장은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화재 시 대피 방법 홍보에 나섰다. 공동주택에서 화재 발생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신속한 대피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화염이나 연기 등으로 인해 복도나 계단을 통한 지상으로의 대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택 내 대피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대표적인 공동주택 세대 내 대피시설로는 경량 칸막이와 대피 공간, 하향식 피난구가 있다.

경량 칸막이는 아파트 발코니 벽면

에 파피라기 쉬운 석고보드 등으로 만들어 놓은 대피시설로 화재 발생 시 망치나 발차기로 벽을 부수고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이지만 경량 칸막이 앞에 무거운 물건 등을 적치해 신속한 대피를 막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관심과 주위가 필요하다.

대피 공간은 화재를 차단하는 내화구조의 벽체와 방화문으로 발코니에 설치되어 화염, 연기에 의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공간으로 화재시 방화문을 닫고 구조를 기다리면 되지만, 마찬가지로 대피공간을 다용도실, 세탁실 등과 겸용하고 있어 입주민들이 용도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향식 피난구는 아파트 발코니 등에 설치하는 피난시설로 화재 발생 시 내림식 피난사다리를 펼친 다음 아래 층으로 대피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자료: 질병관리청